

직업에 대한 아동의 성별 고정관념의 인식*

Children's Perceptions of Occupational Sex-Stereotypes

유 미 숙
Yoo, Mi 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study (1) children's sex-stereotyped perception toward adult occupations, and (2) the impact of traditional sex-stereotypes on future occupational prefer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0 children, 3 to 8 years of age enrolled in kindergatens and elementary schools. The instrument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and consisted of 10 occupations which are traditionally sex-typed in Korean society. 5 male and female sex-typed occupations were selec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200 college students. These occupations were illustrated on 10 pictorial cards, and short verbal explanations were given for each of them.

It was found that: (1) Levels of children's perception of occupational sex stereotypes show that children aged five to six are marked comparatively higher than those aged three to four i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 children of seven to eight age indicate slightly downward; however, they are not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ose of five to six.

- (2) As far as levels of children's perception of occupational sex stereotypes aged three to four, five to six and seven to eight are concerned, interaction between age and sex was not shown significantly. Female children were more stereotyped at almost all age levels.
- (3) Irrespective of sex and age, all subjects were more familiar with male than with female occupations.
- (4) In the choice of future occupations, boys as well as girls preferred sex-stereotyped occupations for themselves. Boy's choices were more stereotyped than girls', but the number of kinds of occupations chosen by boys and by girls was not different.
- (5) There was an increase with age in the number of children who gave future occupational choices.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I. 서 론

A.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각 문화내에는 성별에 따라 남성적 특질이 나 여성적 특질로 규정짓는 행동 특질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어릴때부터 남녀아동은 각기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그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놀이의 종류를 비롯하여 자라나는 과정에서 계속 다른 행동양식을 기대받는다.

다시 말하면, 아동은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문화가 정의해 놓은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적절한 성역할을 습득하도록 기대되고, 성에 적절한 자아개념과 성격특성을 습득해 나가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생계유지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인정과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이 성별 고정관념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은 어릴때부터 그 문화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선호하도록 격려받고 압력을 받게 된다. 즉 아동은 어른들로부터 주어지는 장난감, 놀이의 종류에서 앞으로 자신이 갖게 될 직업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최근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직종에 여성들이 참여하기 위한 도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비전통적인 직종에서 성공을 성취하는데 커다란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러 종류의 직종에 진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여성이 여성다운 역할과 행동을 벗어나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직업을 택하는 것은 그 사회가 규정한 성별에 적합한 역할과는 어긋나

는 것으로써 여성답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전통적인 성 역할 개념이 흔들리고 변화되어가기 시작했으며 몇몇 학자들은 이상적인 사회는 남녀에 관계없이 행동과 감정의 전체범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수적 역할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becca, Hefner, & Oreshansky, 1976).

실제로 우리사회에 내재해 있는 성 역할편견과 한정된 성별 고정관념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개개인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재능과 잠재력을 약화시켜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는 어떤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인식된 반면, 어떤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인식되어 있다. 한편 아동의 많은 행동과 태도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인 모델이기 때문에 (Mischel, 1970), 직업적 역할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성인의 성유형화된 고정관념이 아동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아동은 3세 무렵부터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어온 성 역할을 학습하기 시작하며 (Kohlberg, 1966) 성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된 활동을 선호하며, 성별에 적합한 행동들을 발달시킨다고 시사하고 있다 (Getty & Cann, 1981).

우리나라에서는 성 역할 발달에 관한 연구가 몇편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직업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아동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3~8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에 따라 아동의 성 역할에 대

한 지각이 어떤 발달적 변화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부차적으로 그 아동들의 장래 희망직종도 조사하여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B.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에 의해 고정관념화된 특정직업(여성적 직업: 5, 남성적 직업: 5)에 대한 아동의 지각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둘째, 성인에 의해 고정관념화된 특정직업에 대한 아동의 지각정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셋째,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아동의 장래 희망직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A. 성 역할

성 역할의 개념에 대해 Block(1973)은 개개인의 문화에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지어 이해하는 특질들의 집합체라 하였으며, Kagan(1964)은 성 역할 규범(Sex-role standar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개념을 사회적으로 명명되어 있는, 남녀간에 차이를 두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선정된 속성 및 행동, 태도간에서 학습된 연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녀에 대한 보편적 개념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별 고정관념이란 남녀를 구분하는 특성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를 의미한다(이숙, 1982:7). 즉 행동, 복장, 외모 및 성격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신념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은 어떤 직업을 남성이나 혹은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신념을 말한다.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은 누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가를 실제로 결정짓게 된다.

B.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업도 성에 따라 분화되어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 가치나 기대속에 반영되어 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성에게 적합한 직종과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남성적인직종에 들어가는데는 커다란 장애를 겪게 된다. 이는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직업에 있어서도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주경란·박부권·유현숙(1982:127)의 연구에 의하면 토목기술자, 항공기 조종사, 기계기술자, 대통령과 같이 어렵고 힘들며 권위와 권력이 뒤따르는 직종은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간호원, 약사, 초등학교원 등과 같이 타인을 간호하고 돌보아 주는 직종은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Panek과 Rush, 그리고 Greenawalt(1977)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5개의 직업목록을 제시하고 그 직업이 남성, 여성, 혹은 중성적인지를 구분하도록 한 결과 법률가,

경찰관, 의사, 경영인 등은 남성에게 적합하고, 반면 여성적 직업은 국민학교교사, 타이피스트, 도서관사서, 간호원 등이었다. 또한 Albrecht, Buhr, Chadwick (1977)은 유타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개의 직업중 의사, 과학자, 법률가, 국회의원 등 9개의 직종은 남성에게 보다 적합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단지 비서, 간호원, 가정주부 3직종만이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한 개인에게 있어 어린시절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 성에 따라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요구를 하는가는 자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이진옥(1978: 60)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성 역할 학습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아들, 딸을 구별하여 지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해서도 아들에게는 의사, 정치, 외교, 법관 등의 직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딸에게는 예능인, 학자, 교수, 현모양처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의 장래직업에 대한 기대면에서 남녀 구별을 하고 있음은 양복남(1978)의 연구와 최미리(1980)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최근에 와서 아동을 위한 독서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독서물이 아동의 성 역할 학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책들이 고정된 관념을 나타내고 있음이 밝혀졌다.

직업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의 직업이 분화되어 차별적으로 나타나 있다. 여자의 직업보다 남자의 직업이 종류가 많고

다양하며, 남자는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여자는 소극적 활동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윤경, 1981: 이춘하, 1980: Hendler, 1976).

이와 같이 아동용 독서물에 여성의 직종 묘사가 제한되어 있음은 여아들로 하여금 장래의 직업적 열망을 낮게 하며, 또 성 편견에 의한 직종묘사는 남아·여아 모두에게 인간으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려는 꿈을 약화시킨다.

C. 아동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

이와 같이 아동을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른들이 직업에 대해 성별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아동들은 무의식중에 그러한 고정관념에 내재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아동은 매우 어린 나이에서도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구분지어 지각한다.

이에 대한 연구를 보면, Harris와 Satter(1981)가 취학전 아동 48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별 고정관념을 조사한 결과 5세된 아동들도 성에 따른 심리적·직업적 고정관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phard와 Hess(1975)는 유치원, 중학교 2년, 대학생, 어른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정도를 조사해서 연령차를 밝혔다. 그 결과 유치원에서 중 2, 대학교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러한 고정관념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어른에 있어서는 다시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강해졌다. 또한 유치원 아동을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의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융통성을 나타내었다.

Garrett, Ein과 Tremaine (1977)는 중류층학교에 다니는 355명의 1, 3, 5학년 아동들에게 40개의 성인직업(남성적, 여성적, 중성적 직업)들을 제시하고 그 각각의 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이 어느 성인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나이가 많은 아동들은 그보다 어린 아동들보다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 있어서 더욱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중성적 직업과 남성적 직업에 대해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남성지향적인 것으로 그 직업을 평정했고, 여성적 직업에 대해서는 어떤 연령차나 성차도 없었다. 또한 아동들은 40개의 직업목록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았고, 남성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5~6세 사이의 128명 아동을 대상으로 Cordua, Ncgraw 그리고 Drabman(1979) 등은 성유형화된 직업(의사, 간호원)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연구하였다. 그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과 반대가 되는 상황의 필름을 보았을 때, 즉 남자간호원과 여자 의사의 필름을 보았음에서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것들을 남자의사와 여자간호원으로 잘못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더우기 여자의사를 잘못 지각하기 보다는 남자간호원을 남자의사로 잘못 지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것은 여자의사보다 남자간호원을 아동이 접한 경향이 더 적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어린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Gettys와 Cann의 연구(1981)에서 보면 2.5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든 연령집단에서 남성이 하는 직업과 여성이 하는 직업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즉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은 2.5세에서 3세 사이부터 학습되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그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린 직업에 대한 아동의 성별 고정 관념은 2.5세나 3세의 매우 어린나이부터 인식하기 시작하여 7세나 8세까지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증가하는 편이나 고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더 어린 아동보다 융통성을 갖게 된다. 한편 남아와 여아가 모두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7~8세 이전까지는 어떤 성차도 나타나지 않았다.

D.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 아동의 장래희망 직업

아동이 매우 어린나이에서도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구분지어 지각할 뿐 아니라 장래에 갖게 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어른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한 여러 연구(Benf, 1974; Looft, 1971; Siegel, 1973)에 의하면, 취학전 아동에게 있어서도 장래희망직업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남아들이 여아들 보다 더 다양한 직업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들이 장래희망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었다. 즉, 남아들은 경찰관, 과학자, 운동선수, 의사등과 같이 모험적이며 전통적으로 남성적 직업을 선택한다. 반면, 여아들은 교사나 간호원 같이 보호적이며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직업을 선택한다.

3.8세에서 5.8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Papalia와 Tennent (1975)의 연구에서는 남아·여아 모두 전통적 고정관념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였으며 그들이 근본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직업의 수에 있어서는 유의있는 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남아보다 더 많은 여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의 실현성으로 인해 그들의 선택을 변화시켰다.

취학전 아동 48명을 대상으로 Harris와 Satter (1981)가 조사한 연구에서도 남아나 여아 모두 자신의 성에 적절한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아원, 유치원, 3학년,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연구한 O'Keefe와 Hyde (1983)에 의하면, 장래희망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연령차도 보이지 않았으며 모든 연령에서 자기의 성에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였다. 한편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장래직업선택에 있어서 더 많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아와 여아에 의해 선택된 직업의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그들이 다섯 번 이상 선택한 직업을 보면, 여아의 경우 간호원(12), 교사(12), 엄마(5) 등이었고 남아의 경우 트럭운전수(11), 소방관(10), 농부(5) 등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 다니는 3~8세의 중상류층 남녀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환경변화를 가능한 한 통제하기 위하여 영동지구에 위치한 1개의 국민학교와 3개의 유치원을 선정하여, 이곳에 다니는 아동중에서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의 아동으로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3~4세 아동(여아: 22명·남아: 18명), 5~6세 아동(여아: 20명·남아: 20명), 7~8세 아동 40명(여아: 20명·남아: 20명)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B. 도구 구성

아동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구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단계

먼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100명의 남자대학생과 100명의 여자대학생에게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의 종류를 각각 20가지 이상씩 적도록 하였다. 이 조사결과와 연구자가 선행연구논문에서 조사한 직업의 종류를 보충하여, 또 다시 앞에서와는 다른 남녀대학생 각 100명씩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은 66개의 직업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직업들이 각각 남성에게 적합한가, 여성에게 적합한가, 혹은 남성·여성 모

두에게 적합한가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각 직업이 남성·여성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하는 응답이 의외로 많이 나왔다. 이것은 대상이 대학생층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즉 그들은 성별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은 남녀대학생 모두에게서 85% 이상의 높은 일치도를 얻은 것으로 10개를 선택하였고,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은 남녀대학생 모두에게서 55% 이상의 일치도를 얻은 것으로 9개를 선택하였다.

2 단계

2단계에서는 1 단계에서 나타난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 10개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 9개를 중심으로 하고, 그의 선행연구인 Harris와 Satter(1981)의 연구, Geetys와 Cann(1981)의 연구, Tremaine와 Schau, 그리고 Busch(1982)의 연구, Zuckerman과 Sayre(1982)의 연구, Rosental과 Chapman의 연구, 주경란, 박부권, 유현숙(1982)의 연구에서 나타난 직업목록을 참고하여 아동학 전공자 4명이 모여 토의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여성적 직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직업은 간호원, 유치원 교사, 무용가, 비서, 의상디자이너가 선택되었고, 남성적 직업으로서는 소방대원, 경찰관, 운전수, 건축기술자, 야구선수가 선택되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 5개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 5개가 선정되었다.

그런데 이 직업에 대해 아동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3~8세 아동 1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해 보았더니, 거의 모든 아동이 “비서”라는 직업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아동들 중 9명이 남성적 직업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비서”의 직업을 “미용사”로 대체하였다.

3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10개의 직업을 어린 아동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10개의 그림카드를 만들었다. 각 그림카드는 한장에 각각의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남녀 그림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아동에게 각각의 직업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각 직업이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으로 나타내었다. 이를 위해 국민학교 4학년 학생 40명에게 10개의 직업이 각각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를 적도록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각 직업에 설명을 붙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10개의 그림카드와 그 그림카드를 설명하는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

C. 절 차

1. 예비 검사

아동이 연구도구로 선정된 직업과 그에 대한 그림카드를 충분히 이해하는가를 확인하고,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고, 실시하는데 있어서 방법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검사가 실시되었다. 3~8세 아동 여아 10명, 남아 1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아동들은 본 연구과제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모든 연령의 피험자가 이 실험을 완전히 수행하는데 평균 4분정도 걸렸다. 실시순서에 있어서 직업에 대한 아동의 지각

을 검사한 후 장래희망 직업을 질문했을 경우 연구도구로 선정된 직업명칭이 장래희망 직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장래희망직업을 먼저 질문하기로 하였다.

2. 본 검사

본 검사는 피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자는 아동을 개별적으로 각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 있는 빈방을 이용하였다. 먼저 장래희망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어린이 이름)가 다음에 크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이것은 틀린 답이나 맞는 답이 없으니까 (어린이 이름)가 커서 갖고 싶은 직업을 얘기해 보아요” 다음에 그림카드를 보여주면서 “이제부터 나와 그림카드 놀이를 해보기로 해요. 내가 그림카드를 보여 주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고 남자가 하는 일인지 여자가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어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요? (활동내용)을 하는 (직업명)이지요?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 검사에서 사용된 10개의 직업 그림카드를 아동에게 제시하는 순서는 무작위로 배열되었다. 또한 질문을 할 때도 남자와 여자의 순서를 번갈아가며 질문하였다.

D. 자료 분석 방법

10개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남성적·여성적 직업에 대한 지각점수의 합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험자의 연령 및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여 3×2 의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여성적 직업과 남성적 직업 각각에 대한 피험자의 연령 및 성

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적 직업의 지각점수와 남성적 직업의 지각점수 차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다시 하였다. 또 여성적 직업과 남성적 직업중 아동이 어느 직업에 대해 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적인 여성적 직업의 지각점수와 남성적 직업의 지각점수 차에 대해서 t-test를 하였다.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전통적 고정관념에 맞게 응답했을 경우, 즉 남성적 직업을 남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응답했을 때 1점, 반대로 응답했을 경우 0점을 주었다. 그리하여 각 아동들은 남성적 직업에 대한 지각점수와 여성적 직업에 대한 지각점수로 분리된 점수를 얻게 된다. 그리고 직업의 종류가 남성적 직업, 여성적 직업 각각 다섯가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5이며, 전체적인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점수는 남성적 직업의 지각점수와 여성적 직업의 지각점수의 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적 직업, 여성적 직업 둘다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이 직업에 대해 더욱 엄격한 성별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장래희망직업에 있어서는 남아가 남성적 직업을 선택했을 경우와 여성적 직업을 선택했을 경우 즉,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성별에 적합한 직업을 택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이들 응답자들의 반응의 빈도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χ^2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각 성에 적합한 직업인가의 여부는 앞에서 조사한 대학생들의 응답에

의거하였다.

IV. 결 과

A. 아동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동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정도를 피험자의 연령 및 성별, 직업의 성별에 따라 종합적으로 제시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피험자의 연령 및 성별, 직업의 성별에 따른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점수 분포

피험자의 연령	피험자의 성별	점 수	
		직업의 성별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점수
3~4	남	여성적	3.47
		남성적	4.26
		합 계	7.73
	여	여성적	4.29
		남성적	4.67
		합 계	8.96
전 체		8.35	
5~6	남	여성적	4.25
		남성적	4.85
		합 계	9.10
	여	여성적	4.45
		남성적	4.90
		합 계	9.35
전 체		9.23	
7~8	남	여성적	4.25
		남성적	4.70
		합 계	8.95
	여	여성적	4.60
		남성적	4.80
		합 계	9.40
전 체		9.18	

이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와 t-tes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이원변량분석 결과표

변 럙 원	자승화	자유도	F
피험자연령 (A)	9.76	2	5.83**
피험자성별 (B)	6.11	1	7.30**
AB	2.59	2	1.55
오 차	195.87	114	

** P < .01

<표 2>에서와 같이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점수를 피험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변량분석한 결과, 피험자의 연령에 따른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점수 차는 $F(2,114) = 5.83, P < .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험자의 성별 효과도 $F(1,114) = 7.30, P < .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첫째, 연령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점수가 증가하였다. 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Duncan의 방법에 의한 Multiple Range Test 결과 3~4세 아동과 5~6세 아동간의 점수차이와 3~4세 아동과 7~8세 아동간의 점수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6세 아동과 7~8세 아동간의 점수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성별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점수가 더 높았다.

〈표 3〉 여성적 직업점수와 남성적 직업점수간의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

직업의 성별	사례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	t
여성적 직업	120	4.23	1.06	-4.0124**
남성적 직업	120	4.70	0.74	

** P < .001

〈표 3〉에서와 같이 피험자들의 전체적인 여성적 직업의 지각점수와 남성적 직업의 지각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 = -4.0124, P < .001$). 즉 피험자들은 전체적으로 여성적 직업보다는 남성적 직업을 더욱 잘 지각하고 있었다.

B. 아동의 장래희망직업 선택

아동이 장래희망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정도 자신의 성에 적합한, 즉 전통적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성별로 본 장래희망직업 선택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직업을 선택한 빈도수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 빈도수	전체
남아	1	44	45
여아	9	34	43
전체	10	78	88

$\chi^2 = 7.641, df = 1, P < .01$

〈표 4〉에서와 같이 남아·여아 모두 장래희망직업 선택에 있어서 전통적 고정관념에 따라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

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더 고정관념화된 직업선택 경향을 보였다.

($\chi^2 = 7.641, P < .01$)

아동이 응답한 장래희망직종은 다음 〈표 5〉과 같다.¹⁾

〈표 5〉 아동의 장래희망 직종

	남아(N=45)	여아(N=43)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직업선택	군인(장군) 11	간 호 원 18
	과 학 자 11	선 생 님 10
	의 사 8	대 학교수 1
	경 찰 5	학 자 1
	운동선수 3	회 사 원 1
	운 전 수 2	유치원선생님 1
	회 사 원 1	의상디자이너 1
	법 관 1	화 가 1
	X-ray 기 사 1	
	학 자 1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직업선택		의 사 7
	선 생 님 1	소방대원 1
		경 찰 1

* 1) 회사원, 학자, 대학교수, 화가 등은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서 중성적 직업 으로 나타났으나 여기에서는 각 성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5〉에서와 같이 남아의 직업선택이 여아보다 더 고정관념화된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남아와 여아가 선택한 직업종류의 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들이 성장했을 때 갖고 싶은 직종을 물어본 결과, 120명의 아동 중 17명의 아동이 응답을 하지 못하였고, 15명의 아동은 공주, 로봇트, 엄마, 아빠등 비직업 명칭을 대었다. 이러한 아동을 제외한 88명의 아동들 중에서 남아와 여아는 각각 11개씩의 다른 직업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남아의 경우는 11개의 각기 다른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45명의 아동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비해 여아의 경우는 간호원을 선택한 아동이 18명, 선생님을 택한 아동이 10명이나 되며 7명의 아동이 의사를 택하였고 그 외의 직업을 택한 아동은 극히 소수였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래희망직업을 응답한 아동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V. 논 의

앞에서 제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정도와 장래희망직업의 선택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아동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3~4세 정도의 매우 어린 아동들도 각 직업들이 남성에게 적합한지 또는 여성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전통

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연령집단의 아동들이 직업을 어른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거의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었다.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 정도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러나 5~6세 아동과 7~8세 아동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2.5세에서 8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Gettys와 Cann(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동들이 직업에 대해 전통적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론적 배경에서 지적했듯이 성별에 따라 편견을 갖고 있는 부모의 기대 차이와 성별에 따라 높게 고정관념화된 것으로 나타난 아동용 독서물과 TV프로그램 때문일 것이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점차 완화된다고 하는 Shephard와 Hess(1975), Garrett, Ein 그리고 Tremaine(1977), Q'Keefe와 Hyde(1983)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와는 연구대상아동의 연령에 차이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과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만 구분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본 연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학교의 경우(직업명)을 누가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남녀 모두라고 응답한 아동이 더러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더 많은 연령층을 포함함은 물론 중성적 직업도 포함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에서 조사한

장래희망직업 선택에서 남아가 더 자신의 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더 고정관념화된 경향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아가 남아보다 어른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더 잘 지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자신의 직업을 희망함에 있어서 여성적 직업, 남성적 직업에 대한 구분보다는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으로 보이며, 이는 또한 부모의 기대가 점차 남녀간에 차별을 두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적 직업보다는 남성적 직업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Gettys와 Cann (1981)의 연구결과와 O'Keefe와 Hyde (198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3, 4, 5세의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경미 (1981)의 연구결과에서 자신 및 이성의 성역할 식별점수가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직업의 성별과 아동의 연령별,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으며 연령 및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남성적 직업을 여성적 직업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arrett과 Ein 그리고 Tremaine (197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적 직업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성차가 없었고, 중성적 직업과 남성적 직업에 대해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남성지향적인 것으로 평정했다.

이 연구결과에서 남성적 직업을 여성적 직

업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직업을 갖고 그 분야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은 남성다운 특성으로 간주하고, 여성다움이란 가정에서 안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을 남성적 직업, 여성적 직업으로 구분짓기 이전에 “직업인” 하면 곧바로 남성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아동의 소꿉놀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때 아빠의 역할은 출근하는 것이고 엄마의 역할은 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동이 국민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어른의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남녀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더우기 이러한 구분은 강화해 주는 TV 프로그램이나 독서물 등에 점차 더 많이 접하게 된다면 그들의 직업적 야망은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상당히 좁혀지기 쉽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가정생활에서부터 남녀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하여서는 안되며 자신들의 능력, 취미, 개성에 따라 협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동을 교육함에 있어서 성별에 구애치 말고 남아·여아 모두 다양한 역할 및 직업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가능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선정된 직업에 있어서 여성적 직업보다 남성적 직업이 더 명확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즉 여성적 직업보다는 남성적 직업을 실제로 더 많이 접했으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 아동의 장래희망직업 선택

아동의 장래희망직업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면,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아주 어

렸을 때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선행연구 결과 (Papalia & Tennent, 1975: Gettys & Cann, 1981: Harris & Satter, 1981) 를 지지해 준다. 즉, 매우 어린 연령인 3 ~ 4세 아동에 있어서도 문화적으로 자신의 성에 적합하다고 규정된 직업을 선택한다.

한편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 있어서 성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남아가 여아보다 더 고정관념화된 경향을 나타 내었다. 반면 남아와 여아가 선택한 직업종류의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 Loofe (1971)의 연구와 Siegel (1973)의 연구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보다 최근의 연구인 Papalia와 Tennent (1975)의 연구, 그리고 O'Keefe와 Hyde (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최근에 이를수록 남아와 여아가 선택하는 직업종류의 수가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은 점차 여아가 다양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게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Papalia와 Tennent (1975)의 연구에서 보여졌듯이 취학전 여아들이 선택하는 직업을 실제로 장래에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아동들 자신도 갈등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란 사회에 의해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옳고 그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으며, 성에 관계없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지도해 주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성별에 따라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어른들의 의식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둘째, 아동교육을

말고 있는 부모는 물론 교사들이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지 말고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키워주도록 하고, 셋째, 현대에 와서 아동의 사회화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아동용 독서물등에 성차별을 두지 않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장래희망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연령차도 보이지 않았다. 즉 모든 연령층의 아동들이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자신의 성에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O'Keefe와 Hyde (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3~5세 아동의 경우 아직 직업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아서인지 장래 갖고 싶은 직업을 물었을 때 61명중 응답을 하지 못하는 아동이 14명이나 되었고, 공주(4), 로보트(2), 엄마(2), 아빠(2), 어른(2), 언니(1) 등의 비 직업명칭을 대는 아동이 11명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공주나 로보트가 된다는 아동이 있었는데 이는 이윤경 (1981)의 연구, 이춘하 (1980)의 연구, Hendler (1976)의 연구에서 보여졌듯이 그 시기에 많이 접하고 있는 독서물이나 TV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독서물이나 매스컴 등에서는 아동의 꿈을 심어주는 내용은 물론,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으며 나아가서 인간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직업분야들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하는 것도 필요 하리라고 생각된다.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에 의해 여성적 직업, 남성적 직업으로 고정관념화된 10개의

직업에 대한 3~8세 아동의 성별 및 연령 별에 따른 지각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부차적으로 그 아동들 자신의 장래희망직종도 조사하여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아동들에게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부모나 교사들이 아동들로 하여금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조사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수준은 3~4세 보다는 5~6세 아동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7~8세 아동의 경우는 5~6세 아동보다 다소 하향한 경향이 있으나 5~6세 아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는 차이는 없었다.

2) 3~4세, 5~6세, 7~8세 아동의 직업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의 지각수준은 피험자연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며, 피험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각 연령층 모두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직업에 대해 더욱 엄격한 성별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적 직업, 남성적 직업 각각에 대한 아동의 성별고정관념의 지각수준은 성별연령별에 관계없이 모두 남성적 직업을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의 장래희망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남아, 여아 모두 자신의 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더 고정관념화된 직업선호경향을 보였다. 반면, 남아와 여아가 선택한 직업종

류의 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5) 연령이 증가할 수록 장래희망직업을 응답한 아동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전통적 성별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상을 토대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어른에 의해, 성별에 따라 고정관념화된 직종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보다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된 고정관념을 알기 위해서는 좀더 나이가 든 층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의 지각정도 및 장래희망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3~8세의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외국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민학교 고학년이나 청년기에 이룰수록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완화되어 융통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연령단계를 확장시켜 조사함과 아울러 남성적 직업·여성적 직업외에 중성적 직업도 연구도구에 넣어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3) 앞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모의 직업유무 및 사회계층, 교육기관의 경험유무등과 같은 여러 환경변인에 따른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지각수준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미.(1981). 취학전 아동의 성 역할 식별 및 선호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박민자.(1981). 한국여성의 사회화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논문집, 10집.
- 양옥남.(1977). 자녀교육에 있어서 성차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숙.(1982). 취학전 아동의 성 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이윤경.(1981). 유아그림동화책에 나타난 성 역할의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이종란.(1981). 취학전 아동의 성 역할 선호성 및 그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 이필순.(1977). 아동의 흥미발달에 대한 조사연구-가사, 사람, 독서, 직업 및 학교에의 흥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 이현림.(1977).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직업 가치관. 대구영남대학교 학생지도연구 구소, 「학생연구」, 8, 1.
- 이현옥.(1979). 유아의 성 역할 학습을 위한 유치원교사 및 어머니의 태도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주경란·박부권·유현숙.(1982).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미리.(1980).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가치관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 Freedman J. L., Sears, D. O., & Carlsmith (1983). L. M. 「사회심리학」.
- 홍대식 역. 서울 : 박영사.
- Albrecht, S.L., Bahr, H.M., & Chadwick, B.A. (1977). Public stereotyping of role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1, 233-240.
- Beuf, A. (1974). Doctor, lawyer, household drudge. Journal of Communication, 24, 142-145.
- Block, J.H. (1973). Conception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Cordua, G.D., McGraw, K.O., & Drabman, R.S. (1979). Doctor or nurse. Children's perception of sex typed occupations. Child Development, 50, 590-593.
- Garrett, C.S., Ein, P.L., & Tremaine, L. (1977) The development of gender stereotyping of adult occupation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 507-512.
- Gettys, L.D., & Cann, A. (1981) Children's perceptions of occupational sex stereotypes. Sex Roles, 7, 301-308.
- Harris, M.S., & Satter, B.J. (1981). Sex-role stereotypes of kindergaten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8, 49-61.
- Hendler, M.R. (1971). An analysis of sex role attributes, behaviors, and occupations in contemporary children's picture books. New York Univ.
- Kohlberg, L.A. (1966). 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ributes. In E.E., Maccoby (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Kriedberg, G., Butcher, A.L., & White, K.M. (1978). Vocational roles choice in second and sixthgrade children. Sex Roles, 4, 175-181.
- Looft, W.R. (1971). Sex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vocational aspirations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5, 366.

- Meyer, Buf. (1980). The development of girl's sex-rol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51, 508-514.
- Mischel, W. (1970). Sex typing and socialization. In Mussen, P.H.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O'keefe, E.S.C., & Hyde, J.S. (1983).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sex-role stereotypes: The effects of gender stability and age. Sex Roles, 9, 481-492.
- Panek, P.E., Rush, M.C., & Greenawalt, J.P. (1977). Current sex stereotypes of 25 occupations. Psychological Reports.
- Papalia, D.E., & Tennent, S.S. (1975) Vocational aspirations in preschoolers: A manifestation of early sex role stereotyping. Sex Roles, 1, 197-199.
- Rebecca, M., Hefener, R., & Oreshansky, B. (1976). A model of sex-role transcend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32, 197-206.
- Rosenthal, D.A., & Chapman, D.C. (1982). lady Spaceman: Children's perceptions of sex stereotyped occupations. Sex Roles, 8, 959-965.
- Shepard, W.O., & Hess, D.T. (1975). Attitudes in four age groups toward sex role divisions in adult occupations and activi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 27-39.
- Siegel, C.L.F. (1973). Sex Differences in the occupational choices of second grad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 15-19.
- Tremaine, L.S., Schau, C.G., & Busch, J.W. (1982). Children's occupational sex-typing. Sex Roles, 8, 691-710.
- Zuckerman, D.M., & Sayre, D.H. (1982). Cultural sex-role expectations, and children's sex-role concepts. Sex Roles, 8, 853-862.